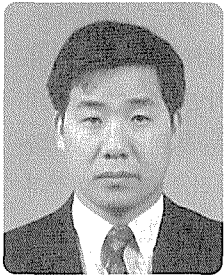


# 전후 국제석유시장 구도



**구 자 권**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은 43일만에 미국의 승전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유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라크내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OPEC이 와해되고, 석유시장의 주도권이 OPEC에서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성급한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 이라크의 생산증대로 석유시장은 만성적인 과잉공급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다. 전후 석유시장구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첫째로는 친미이라크 정권의 등장으로 시장의 공급조절자 역할을 하는 OPEC의 영향력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이라크 석유공급능력의 증대 및 이로 인한 과잉공급 우려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이라크 승전을 계기로 중동 지역 석유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 전후 OPEC의 위상

먼저, 석유시장의 공급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는 OPEC의 시장통제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보자. 非OPEC산유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와 적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불필요한 잉여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반면, OPEC 국가들은 대체로 저렴한 생산비와 높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들이며, 석유수입(REVENUE)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량조절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전체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을 조절한다. OPEC의 힘은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다. 생산을 조절하려면 잉여 생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OPEC 11개 국가들 중에서도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다. 사우디, 나이지리아, 알제리, 쿠웨이트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잉

UN의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이라크는 OPEC의 쿼타제도내에 편입될 것이 확실하다. 이라크 생산이 일정규모에 오르면, 이라크에도 생산쿼타를 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여생산능력의 대부분은 사우디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우디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석유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후 UN 제재조치에 따른 수출 제약으로 OPEC 회원국이면서도 쿼타 제도에서 제외되는 이방인 신세였다. 이라크가 잉여생산능력을 활용하여 OPEC의 생산량조절이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UN에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금 제재조치가 필요 없다고 이의 해제를 요구 하고 있다. UN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제재조치의 해제는 대량과 괴무기가 없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UN 제재조치의 해제는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UN의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이라크는 OPEC의 쿼타제도내에 편입될 것이 확실하다. 이라크 생산이 일정 규모에 오르면, 이라크에도 생산쿼타를 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이라크에 새롭게 쿼타를 배정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이 그만큼 자국의 쿼타를 양보해야 한다. 결국, OPEC의 결속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대부분은 사우디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우디가 이라크를 미래의 주도권을 다룰 경쟁자로 볼 경우 자국의 쉐어를 내놓는 데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라크가 충분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현재의 OPEC 구도-사우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성급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승전에 따른 친미 정권하의 이라크의 OPEC복귀로 OPEC의 와해를 예상하며, 유가 폭락이 장기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OPEC이나 석유시장의 구도를 현 단계에서 선불리 예측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친미정권이 수립될

경우 이라크가 OPEC내에서 온건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베네수엘라 Chavez 정권이 주도하던 OPEC내 강경 분위기를 상쇄하여 시장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이라크가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저유가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주변 아랍국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저유가는 석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아랍산유국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정권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내부의 다양한 세력의 통합이라든가,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등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다. 또 하나, 이라크가 OPEC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능력의 증대는 기존생산시설의 복구 이외에 미개발 유전의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미개발 유전에 대한 서방측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이라크가 상당한 잉여 생산능력을 확보할 때만이 이라크의 시장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라크가 OPEC을 탈퇴할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현재의 과도정부단계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정부 수립이후에도 이라크의 자국이익 및 아랍권의 압력등을 고려할 때, OPEC탈퇴카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라크 생산능력증대

먼저, 이라크 석유잠재력은 알려진 대로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 잠재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절차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라크가 엄청난 석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라크의 시장 영향력은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세계 확인매장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는 현재 세계매장량의 11%를 차지하는 매장량 2위의 산유국이다. 더구나, 이라크는 80년대 이란-이라크전, 90년대 UN제재 조치 등으로 20년 이상 제대로 된 석유 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라크에 충분한 탐사가 이루어질 경우 매장량규모는 사우디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80개 유전중 개발된 유전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라크 석유개발권과 관련하여도 미국의 승전으로 미국계기업이 모든 유전의 개발권을 일방적으로 확보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기존생산시설의 복구 및 운영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개발 신규유전의 경우에는 향후 수립될 이라크 신정부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유럽 및 아랍국들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존의 생산유전의 경우는 그동안 적절한 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매장층의 손상으로 추가 투자가 없을 경우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 석유산업에 서방기업의 유전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 기존생산시설에서도 상당한 생산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석유산업 복구에 세계적인 유전장비회사인 미국의 할리버튼사가 깊이 관여한 것은 이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구소련 붕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러시아 석유생산이 이러한 기법의 도입으로 최근 연 생

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10~20%의 생산증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미있는 생산능력의 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개발 유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미개발유전에 대하여는 후세인 정권이 90년대 유럽 및 러시아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UN제재조치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이 개발하려면, 이라크 신정부의 정치적 안정, 계약문제 및 막대한 투자 문제등이 선행되어야하고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이라크 생산능력은 2010년전후에 현재의 2배수준인 600만 B/D 까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OPEC내에서 이라크의 위상은 사우디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두 나라의 생산량은 OPEC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이 될 수 있고, 미국이 이 두 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급이나 가격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 중동지역의 석유공급구도

이번 미국의 승전으로 중동지역의 석유공급구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석유자원확보를 위한 원대한 구도의 일부라든가 또는 중동지역의 왕정국가들에 민주정부를 확산시킴으로서 공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분석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변의 중동산유국을 살펴보자. 미국이 목표로 할 수 있는 국

이라크 생산이 복귀되고 이라크가 OPEC 쿼타제도 내로 편입될 경우 OPEC회원국들 간의 쿼타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 될 수 있고, 이것이 증산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OPEC의 결속력 약화 및 시장약세를 예상할 수 있다.

가들은 이란이나, 사우디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석유공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먼저 사우디의 경우, 미국이 진정으로 사우디의 왕정타파를 위해 나선다면, 그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그 추진과정에서 또 한번의 석유위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우디로서는 왕정유지가 최고의 국가 목표라고 본다면, 왕정타파라는 기치를 내세운다면, 사우디가 미국이나 서방에 공급안보를 위해 협력할 이유가 없다. 또, 사우디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9.11이후 미국과 사우디의 전통적인 협력관계에 다소 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석유시장이나 공급문제에서의 협력관계에 이상이 발생한 조짐은 없는 것 같다. 전통적인 석유시장의 안정구도는 미국의 석유공급확보라는 이해와 사우디의 왕정유지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설사 미국정부가 이러한 장대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텐데, 그때까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변수이다. 다만, 이라크라는 대안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레버리지로 사우디에 대한 압력(길들이기)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번 승전으로 이란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정체변경을 시도한다면, 회교근본주의로 뭉친 이란이 대응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행동은 필연적으로 석유공급불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전후 시장구도

결론적으로 미국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석유시장의 구도나 OPEC내외부의 정책이나

위상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라크 생산이 복귀되고 이라크가 OPEC 쿼타제도 내로 편입될 경우 OPEC회원국들 간의 쿼타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 될 수 있고, 이것이 증산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OPEC의 결속력 약화 및 시장약세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OPEC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은 OPEC회원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전통적으로 OPEC은 위기시마다 오히려 강한 결속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OPEC의 대응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이라크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할 경우, OPEC내에서 이라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온건파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것이 반드시 저유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OPEC산유국들은 2000년이래 22~28불 수준의 유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고 대체로 유가를 이 범위에서 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수준은 OPEC산유국들이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재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적정유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신정부 입장에서도 이 수준의 유가는 복구사업이나 재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라는데 동의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의 승전으로 인한 친미 이라크 정권의 등장은 석유시장의 공급안정 및 적정수준의 유가 유지에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기대하듯 OPEC 붕괴나 석유폭락의 장기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아직 성급한 예상으로 보인다. ☉